

송종욱 행장, 앞서가는 디지털 금융...지역밀착 감동 경영

광주은행

지역은행 최초 마이데이터 분허가 RPA 도입 100여개 업무 자동화 대면점포 유지 고객·현장 중심 경영 지역자금 공급·중소기업대출 등 지역 경제성장 기여 평가 최우수 3대 주주 광주형 일자리 성공 전인 ESG 경영 지역에 녹색바람 전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광주·전남 기반 광주은행의 고객 밀착 전략이 눈에 띈다.

지역은행 최초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허가를 획득하는 등 디지털 금융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대면 점포 강화를 통해 고객과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대면 점포 확대도 =광주은행은 지난해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허가를 지역은행 최초로 따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준다. 금융 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의 앱에 들어가길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난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교류를 벌이며 디지털 금융 가속화에 대응했다. 두 기업은 각종 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해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금융 업무와 조직문화를 공유해왔다.

광주은행은 제1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토스 앱을 통한 '모바일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와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금융권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왔다.

광주은행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도입해 100개 업무를 자동화하며 직원 업무 효율을 높였다.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대면 점포 전략을 더욱 공고화했다.

젊은 고객층 사이에서 모바일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광주은행은 고객중심·현장중심 경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점포 운영도 강화했다.

시중은행들이 지점을 통폐합하고 폐쇄하는 움직임과 달리 광주은행은 올해도 대면 점포를 유지할 계획이다.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겨울에는 한겨울쉼터를 운영하며 고객의 사랑방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고품층이 주된 고객인 빛고을건강타운, 오치동출장소, 학동출장소는 어르신 전용 점포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밀착 경영과 고객 중심 현장경영의 결실로 광주은행은 지난해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 1633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1377억원)보다 18.6% 증가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광주형 일자리' '포용금융'·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광주은행은 이 같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상생을 바탕으로 한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라는 방향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한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동맥역할에 나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환원하는 광주은행은 사랑의 김장나눔, 연탄배달,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지역과 상생에 노력하고 있다.



서왔다.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지역 재무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그 같은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 평가 결과는 지역 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돕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점포 수 등 인프라, 지역금융 지원 전략 등을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산출해낸다. 지난해 광주은행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노력을 인정 받고 정성평가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은행이 260억원을 출연하며 3대 주주로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해 9월 경형 SUV 신차 '캐스퍼'를 만들어냈다. 다른 시중은행 등 기업들이 섣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을 때 광주은행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자를 단행한 것이다.

지역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광주은행의 노력은 지역사랑통장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광주은행이 출시한 지역사랑통장은 '순천사랑통장', '화순사랑통장', '신안1004통장', '망ج항사랑통장' 등이 있다. 지난 2018년 선보인 '광주·전남사랑카드'는 이용금액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기부되고 있다. 4년 동안 광주은행이 지역에 환원한 기부금은 10억3000만원이 넘는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중심지역 역할은 옛 광주은행 본점이 있던 자리(충장로5가)에 마련된 '포용금융센터'가 도맡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에 문을 연 포용금융센터는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 둘러싸인 소상공인들을 1금융권과의 거래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내놓은 중·저신용자를 1금융권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 '프라이 플러스론'은 새로운 평가모형을 적용해 연체위험을 줄인 금융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은행이 자체적으로 펼친 대출지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만7302건, 1조2350억원에 달한다.

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각 10억원을 출연하며 지역 금융지원 종자돈 마련에 힘을 보탤다.

◇본격 ESG 경영으로 지역에 녹색바람 전파=광주은행은 지난해 ESG 관련 부서를 신설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 원년을 알렸다.

먼저 ESG 인증등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1000억원 규모 원화 ESG채권을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된다.

광주은행은 ESG 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환

용해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금융상품인 'ESG 서포트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품은 우수한 ESG 경영 기업에 최대 0.4%포인트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광주은행은 이번 ESG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내부 ESG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인증 적격기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말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채권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광주은행은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고교 쉼터

지'와 '광주천 푸른 산책길 만들기' '쓰담쓰담 릴레이 봉사'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의 ESG 경영 전략도 내놓았다. 오는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81대(휘발유·경유)를 모두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주시민들이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여서 쌓은 '탄소포인트'를 광주은행이 그만큼 더 보태 후원금을 전하는 '탄소포인트 기부은행'도 운영한다. 광주은행 후원금과 시민 기부금은 광주 도심 내에 숲을 조성하는 '탄소포인트숲' ESG 사업에 쓰인다.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동행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객과 소통하는 창을 대폭 넓히고 있다. 우선 송종욱 은행장은 20~30대 'MZ 세대' 직원

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한 '톡톡데이' 행사를 가상공간 메타버스 등에서 열었다.

송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출규제 강화, 빅테크 기업의 공격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지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 건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변화와 그 대상인 고객의 변화에 맞춰 2022년에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자"며 "특히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현장 실천으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지역 금융 발전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치열해진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 외 임직원일동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도입

자궁근종센터에서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증 치료

- 제 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진료 내용

산부인과, 내과, 유방·갑상선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자궁근종센터,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젊은 MZ 직원과 수평적 대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송프로'라는 이름을 내걸며 소통에 힘쓰고 있다.